

한승혁 “선발 첫 시즌 내 점수 6.5…PS서 더 큰 도전”



한화전 깜짝호투로 벼랑 끝 KIA 가을야구 불씨 살려내
불펜서 선발 변신… 올 21경기 7승 3패·개인 최다인닝 소화
“선발 뛰며 야구 시야 넓혀… 팀에 믿음직한 선수 될 것”

강렬했던 시작과 극적이었던 끝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이 첫 선발로 보낸 2018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한승혁은 지난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즌 16차전에서 5.1이닝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6-1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7승으로 임무를 완수한 한승혁은 11일 경찰청에서 전역한 박준표에게 자리를 내주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한승혁이 만든 승리는 '1승'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5위 KIA는 전날 6위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1회 끝내기 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두 팀의 승차는 사라졌고, KIA의 5강 꿈도 멀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승혁이 기대를 뛰어넘는 호투로 승리를 안겨줬고, 이날 kt 위즈와 더블헤더를 치른 롯데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두 팀의 승차는 순식간에 1.5경기 차로 벌어졌다. '큰일'을 해낸 한승혁은 “전날 투수도 많이 썼

고, 최대한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닝을 조금 더 책임지지 못한 게 아쉽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을 극적인 승리로 장식한 한승혁은 시작도 인상적이었다. 한승혁은 허벅지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 귀국하면서 시범경기도 건너 뛴었다. 마운드 계산에서 밀려나 있던 한승혁은 4월 4일 1군으로 콜업됐고, 이날 팀과 자신의 시즌을 바꿨다.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싸늘이 3연패를 당하고 문학으로 건너갔던 KIA는 이날도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선발 정용운이 3이닝 5실점으로 일찍 강판되면서 1-5로 뒤진 4회 한승혁이 투입됐다. 한승혁은 4이닝 2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허리 싸움을 해줬고, 팀은 10회 연장 승부 끝에 9-6승리를 거뒀다. 연패를 끊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승혁은 이후 '선발 고관'에 빠져있던 KIA의 선발로 변신했

다. 그는 구원으로 나선 두 경기 포함 올 시즌 21경기에 나와 5.83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3패를 기록했다. 2011년 입단 후 가장 많은 88이닝도 소화했다. 7승 중 5승을 kt전에서 독식했고, 기복을 보이며 4차례 엔트리에서 말소되기도 했지만 선발 첫 시즌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한승혁이 자신에게 준 올 시즌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6.5점'이다. 한승혁은 “처음 선발을 했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어깨가 지치기도 했고, 이닝을 많이 못 끌고 간 것도 있다. 힘으로 짧게 짧게 던지는 투수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셨다. 시즌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6.5점을 줬다”며 “주자를 묶을 수 있는 투포가 필요하다. 제구력은 말 안 해도 야구를 그만둘 때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7승은 했지만 선발로서는 부족했던 것 같다. 남은 3.5점은 그런 부분에서 뺐다”고 이야기했다. 리그를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로 꼽히는 그에게 올 시즌은 '변화'와 '야구 시야'를 더한 배움의 시간이다. 한승혁은 “선발로 오래 던지다 보니 느끼는

게 많았다. 타자들 승심과 반응이 보였다. 중간에서는 힘으로 억박지르고 급하게 했는데 야구 시야가 좀 트이는 느낌이었다. 선발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투구에 임할 수 있었다. 책임감은 더 커졌다. 선발로 역할을 못 하면 한 경기라도 바로 넘어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야구는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변화구 구사가 많은 경우 결과가 좋았다. 특히 마지막 한화전에서는 커브도 잘 활용했고, 킥트루도 되다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던질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힘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 경험도 한승혁에게는 좋은 자산이 됐다. 한승혁은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간 적이 많다. 덕아웃에 앉아있으면 괴롭고 동료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며 “나도 길게 던지고 싶었는데, 4-5선발 자리라 많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제구가 흔들리면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다.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지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선발로의 첫 시즌을 잘 마무리한 한승혁은 첫 포스트 시즌의 꿈을 꾸고 있다. 한승혁은 “아직 포스트 시즌을 뛰어보지 못했다. 기회가 온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믿음직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승혁 엔트리 제외…김기태 감독 “큰 일 했으니까”

덕아웃 T 특특

▲3분의 2도 갖고 싶어요 = 유민상이 결승타로 모처럼 웃었다. 지난 1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유민상은 0-0으로 맞선 5회말 1사 2루에서 대타로 나와 우중간 안타로 타점을 올렸다. KIA가 리드를 그대로 지키며 6-1로 승리, 이 안타는 결승타로 기록됐다. 유민상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 있게 치자는 생각으로 했다. 마음의 짐을 3분의 1정도 줄은 것 같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유민상은 지난 2일 NC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0회 무사 만루에서 병살타를 때리면서 패배의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이 됐다. 유민상은 “나 때문에 팀이 쳐서 무거

운 마음이었다. 기회가 오면 남은 3분의 2의 미안함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큰 일 했으니까 = 한승혁이 '큰일'을 하고 11일 엔트리에서 빠졌다. 김기태 감독은 11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전역한 박준표를 등록시키고, 전날 선발로 나와 5.1이닝 무실점이 호투로 7승에 성공한 한승혁을 뺐다. “(한승혁이) 큰일을 했다”며 웃은 김 감독은 “인터뷰 보니까 마지막 등판에도 나오고 싶다고 했더라. 사실상 어렵고 다음 준비해야 하니까”라며 한승혁의 정규시즌 역할이 끝났음을 알렸다. 한편 지난 3일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빠졌던 에이스 양현종은 재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11일 팀에 합류해 몸담들기

에 들어갔다. 우측 허벅지 통증으로 빠졌던 이명기도 12일 선수단에 합류해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저는 좀 더라고요 = 지난 10일 경기는 KIA에는 긴장감 가득한 중요한 승부였다. 전날 롯데에 패를 하면서 승차 없는 불안한 5위에 몰렸던 상황.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한승혁과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한승혁은 “추웠다”며 웃었다. 한승혁은 “어제 밤도 안 잤다. 주자가 나가야 신경을 쓰고 열이 나는 데 경기가 잘 풀렸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5회까지 마스크를 썼던 한승혁은 한승혁과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3명의 주자만 내보냈다. 1회 2사 1루에서는 호잉의 도루를 막으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13일 최종전 팬 감사행사

KIA타이거즈가 2018시즌 홈 최종전이 열리는 오는 13일 팬 감사 행사를 연다. KIA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올 시즌 144번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홈 최종전이 열리는 이날 타이거즈의 미래가 될 2019년 신인 선수들이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KIA는 신인 선수들과 부모를 초청해 시구·시포 행사를 연다. 2019년 신인 선수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은 시포자로 나서 부모님이 던지는 공을 받는다. 응원단의 감사 공연도 펼쳐진다. 경기 도중에는 올 시즌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고, 팬과 함께 하는 플래시 응원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경기 끝난 뒤에는 선수단 전체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언제 등판하나

13일부터 NLCS…3선발 유력

현지 언론의 예상대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3차전에 나선다면, 한국 팬들은 16일 오전에 류현진의 투구를 즐길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1일 7전4승제의 NLCS 경기 시간을 확정, 발표했다. 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가 맞붙는 NLCS 1차전은 13일 오전 9시 9분에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다. 다저스는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1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2차전도 14일 밀러파크에서 오전 5시 9분에 '플레이오프' 한다. 3~5차전은 다저스의 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치른다. 국내 팬들이 주목하는 경기는 3차전이다. MLB닷컴은 “다저스가 1차전 선발을 커쇼로 예고했다. 2, 3차전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도 “2차전 워커 불러, 3차전은 류현진이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현지 언론의 전망도 같다. 류현진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큰 3차전은 16일 오전 8시 39분에 시작한다. 홈팀 선발 투수의 투구로 경기 시작을 알릴 전망이다. 류현진의 그 역할을 가능성이 크다. 4차전은 17일 오전 10시 9분, 5차전은 18일 오전 6시 5분에 시작한다. 시리즈가 5차전에서도 끝나지 않으면 6, 7차전은 다시 밀러파크에서 연다. 6차전 경기 시작 시간은 20일 오전 9시 39분, 7차전은 21일 오전 10시 9분이다. 2018년 NLCS는 '예비 FA(자유계약선수)' 류현진의 입지를 더 굳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최종 리허설에서 전북대 무용과 학생들이 '전북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스포츠 스타 총출동… 전국체전 화려한 개막

오늘 익산종합운동장서 개회식…시·도민·교포 등 3만여명 열띤 경쟁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12일 오후 4시50분 익산종합운동장에서의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전년의 숨겨진, 생동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오는 18일까지 익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13개 시·군 73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와 17개국 국외교포, 이북 5도 등 3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출신 시·도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벌인다.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회의장,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등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등 248여명의 내빈과 2800여명의 선수 및 선수단 임원, 시인, 관객객 등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에 전북에서 진행되는 전국체전은 개막공연 또한 전북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오후 8시까지 180여분간 진행되는 개막행사는 ‘전년전복’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함축된 대서사시를 연출하고자 역대 체전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조성했다. 5개 LED 영상으로 과거천년, 미래천년의 모습을 생생감 있게 연출했으며, 전북만의 독특한 체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선수단 입장을 중앙무대인 ‘천년의 문’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그라운드에 일반관람석을 설치해 관객객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했다.

관객객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백제 금동 풍탁을 활용하는 카운트다운 쇼가 펼쳐진다. 이어 김용택, 윤점용, 왕기서 등 전북대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펼치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전개된다. 공식행사는 전북출신 스포츠스타, 도립국악원, 35사단 장병 등이 출연하여 귀빈인장,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국민의례,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지사, 성화맞이 및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식후행사는 멀티미디어 쇼와 함께 세븐틴, 구구단, 최진희 등 국내 인기가수 공연으로 전국체전 개최식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